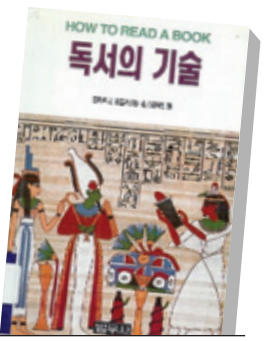


윤담진 REVIEW

질문 없는 독서는 몸만 괴로울 뿐



모티머 J. 애들러 지음

고급에 일관된 글쓰기 훈련 지침이 있다.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이다. 좋은 글을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여러모로 헤아려보아야 한다. 이들 셋은 각각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기본요소인 지식, 구성력, 문장력을 기르는 지름길이다. 여기서 다상량이라고 할 때 생각 상(想)을 쓰지 않고 장사한다고 할 때 쓰는 헤아릴 상(商)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필자 나름대로 풀어보자면, 여러모로 헤아려 보는 것이 글을 조직하는 능력 즉 '구성력'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글 쓰는 이의 지식과 사유를 독자가 소화하기 좋게, 즉 설득력 있게 '조직하는 것'이 글쓰기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생각한다'고 하기보다 '헤아린다'고 하는 것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렇다면 한 권의 책 읽기를 완료할 때마다 위의 세 가지 '읽고, 쓰고, 헤아리는 것'을 동시에 조직할 수 있고, 때면 그런 실질적인 훈련이 되게끔 하는 기술은 없을까. 바쁜 생활인들이 글쓰기 훈련을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기에도 어려운 노릇이니 말이다. 만약 그런 기술을 익힌다면 많은 독자들이 직업적인 작가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한 차원 높은 독자와 글쓰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독서의 기술>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 책의 지은이는 독서수준에 따라 초급 독서, 점점 독서, 분석 독서, 신도파갈 독서의 4단계로 나눠 설명하는 것임이다. '책은 맛보아야 할 책과 삼켜야 할 책이 있다. 또, 약간이긴 하지만 잘 씹어서 소화해야 할 책도 있다' 이 말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다. 책을 잘 씹어서 소화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분석 독서란 것이다.

분석 독서에 대해 필자가 이해한 요점을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분석 독서의 첫 번째 규칙은 '그 책이 무엇에 대해서 쓴 것인지 안다'는 것이다. 책의 종류를 나눌 수 있는 독자 자신의 카테고리리를 머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책이 무엇에 대해서 썼느냐에 따라 그 '무엇'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책의 구성과 플롯을 통째로 투시하는 것이다. 물론 방법적으로 책을 통째로 투시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꼼꼼히 읽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나 논증에 대한 의문을 그대로 기억해 두면서 빠른 속도로 통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통독한 이후 그 책의 지은이가 어떻게 글을 구성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글이 만들어져가고 이끌어가는 추진력은 무엇인가에 대해 압축해 본다. <독서의 기술>에서는 이를 책의 통일이라고 하고, 플롯과 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중요한 독서과정이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플롯을 중심으로 책의 통일성(줄거리)을 약 다섯 문장,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로 요약문을 쓰는 것이다. 책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디세이아>를 단 다섯 문장으로 요약한 문장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이처럼 구성과 패턴을 파악하고 최대한 간단하고 정확하게 요약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약을 위한 과정은 사고를 단순화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글쓴이의 최초의 발상(문제의식)과 구성에 독자들이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상과 글의 구성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논증과 논거의 나열, 묘사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독자가 소화를 위해 씹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 글쓴이의 재주를 보고 즐겨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독서 내내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무엇이 어떻게 서술돼 있는가, 책에 써여 있는 것이 진실인가, 거기에 어떤 의의가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되면 책이 독자를 따라오지 않고, 독자가 번거롭게 책을 따라다니게 된다. <독서의 기술>은 단순한 독서의 영역을 넘어 지식정보사회에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 중에서 어떻게 진실하고 유용한 정보를 분별해 내며, 최적의 정보를 구하기 위해 유용한 질문을 찾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공동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윤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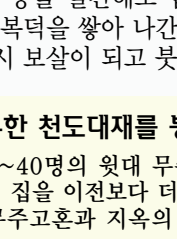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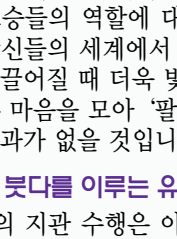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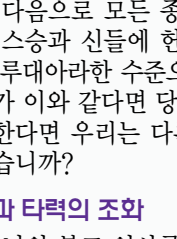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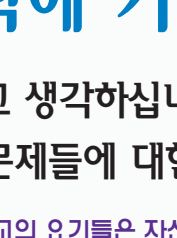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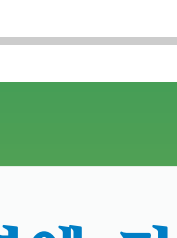


길상사 극락전과 느티나무.

떨칠 수 없는 테마여행의 유혹

눈길 끄는 사찰 테마여행 도서

여행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 등을 순례하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공정여행' '테마여행' 등은 물론, 다른 이들과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자신만의 새롭고 남다른 여행이 각광받고 있다. 출판계에도 '여행'을 테마로 한 서적들이 부쩍 늘어났다. 저자 개인마다 자신의 테마를 정해 새로운 여행지 코스를 개발하는가 하면, 여행지에서 보고 느낀 이야기 등을 새롭게 엮어 재구성한 책들이 눈에 띈다.



젊은 단순한 집이 아닌 수행과 교화라는 종교적 목적을 갖는 건물이다. 최근 순례여행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종교 성지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여행코스가 주목 받고 있다.

<행복을 찾아가는 절집기행-서울>은 불교계에서 20년간 기자 생활을 한 저자 임연태가 불자로서, 기자로서, 시인으로서 찬찬히 사찰을 들여다 본 기록들이다. 저자는 과거 사찰 답사가 유행하던 당시를 회상하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절집인들 고정돼 있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며, 변화된 절집들을 새로운 방법과 시각으로 소개하고 있다.

책에서 저자는 지혜장과 나팔수라는 부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을 통해 절집 구성구석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앞으로도 전국의 모든 절을 다 찾아다니며, 그 속에 잠들어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하는 저자는, 서울의 17개 사찰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안자로 가는 길2>는 스님보다 암자를 더 많이 다닌 '암자 전문가' 정찬주가 10여 년 동안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암자를 찾아다니는 이야기다. 사계절별로 일반 독자가 찾기 좋은 암자 32곳을 소개하고 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암자' '무소유를 화두로 주는 암자' '만개의 햇살이 따사로운 암자' 등 곳곳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과 풍부한 화보로 각 암자의 독특한 느낌을 전한다.

요즘 바쁜 직장인들에게 금요일 반차를 쓰고 2박 3일 동안 떠나는 '반짝해외여행'이 유행하고 있다. 굳이 비싼 돈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는 국내 여행 코스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마음이 먼저 기억하는 그곳이라는 부제답게 <시골 기행>은 저자 강신재가 우리 시대의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며 그 속에서 땅과 바다를 넘으며 꾸역꾸역 살아가는 이들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도시의 삶을 표준이라 여기는 우리 시대에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면 통째로 사라져버릴 시골의 삶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 산골의 배추마을, 천일염으로 유명한 부안 곰소, 남도의 바다가 고스란히 들끓는 장흥의 매성마을, 대한민국 대표 한우마을, 왕골과 짬뽕으로 유명한 태안의 대기마을 등 20곳의 시골 삶을 2년간 채집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서울 봉원사 사하촌, 문화재를 이고 산다는 외딴 민속마을까지 사람들이 흥미롭게 눈여겨볼 만한 마을들까지 소개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도 올레길이 있다>는 국내 최초 로드 플래너가 도심 속 숨은 올레길 52곳을 소개한 책이다.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다면 편한 옷과 신발,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푸른 산과 깨끗한 물, 너른 숲

을 만날 수 있는 서울 근교 올레길을 소개한다. 저자 손성일은 서울 근교 수많은 길 중 독자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고 꼭 걸어 봤으면 하는 길 10곳을 소개한다. 이 코스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회원들과 함께 걸으며 엄선된 길들이다. 직접 수십 번을 걷고 또 걸은 이 길들은 저마다의 매력과 자연을 품고 있어 바쁜 도시인에게 일상의 작은 휴식과 여유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정 기자 soej0802@naver.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4	굿바이 티베트	M. 블루멘크론	하인연꽃
5	초기불교이해	각목	초기불학연구원
6	법정 스님 선묵	법정	다래원
7	불교성지순례(인도 네팔)	대연	이스트위드
8	티베트사자의 서	중앙	정우서적
9	허공법문	김기추	고려원북스
10	정성성이 부처입니다	우룡	효림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현지사 소개 그 여덟번째 주제 - 팔정도 칭명염불 -

보살이 되며 마침내 붓다 이루는 자력에 기반한 타력의 영산불교 '팔정도 칭명염불' 수행법

불교의 여러 수행법들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수행법을 해야 할지 고민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 ◆ 사미타(止, 지)와 위빠사나(觀, 관)는 하나의 자력 수행
불교의 여러 종파에는 위빠사나를 비롯하여 선종의 간화선과 밀교의 만트라 수행 등 많은 자력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행자들은 각자의 수행법을 통해 자신을 정화해 나갑니다. 이 모든 수행법들의 목적은 결국 '현실 세계의 무상함'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수행법들은 공(空)·마음의 증오(證悟)를 종착점으로 합니다.
- ◆ 공(空)의 증오가 과연 수행의 종착점인가?
공을 깨친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노래하고 무애(無碍)를 주장하며 자유로이 행동합니다. 과연 그들은 붓다입니까? 중생이 육도윤회함을 여실히 자신의 지혜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대승경전상의 그 수많은 불보살님들과 불국토를 삼매 속에서 보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까? 결론코 아닙니다. 견성과 공의 증오는 붓다를 이루기 위한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공을 깨우쳐도 거짓됨에 대한 착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 ◆ 기존의 수행법은 완전한 자력(自力), 그러나 타력(他力)이 핵심이다
지금까지의 수행법의 요체는 집중과 지혜, 바로 자력 수행입니다. 그러나 자력 수행은 공·마음의 증오가 한계임을 알려드립니다. 진정한 합일이 아닙니다. 불교가 위대한 이유는 공의 증오를 넘어 보살이 되고, 더 나아가 붓다가 되는 수행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팔정도 칭명염불'입니다.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신 보신 부처님과 육도윤회에 대한 믿음, 연기에 대한 깊은 이해(정진), 청정한 지계, 일념집중이 핵심입니다.

- ◆ 원두교의 요기들은 자신의 영적 상승에 헌신한다.
불교 다음으로 모든 종교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원두교의 수행자들은 그들의 영적 상승과 신들에 헌신하여 타력을 이끌어 냅니다. 과연 그들의 성취는 높게는 무무대아라한 수준으로 불교 수행자들에 못지 않습니다. 타력에 의한 그들의 성취가 이와 같다면 당연히 우리의 교주이시고 우주 법계의 법왕이신 부처님께 헌신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보살과나 불과도 증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 자력과 타력의 조화
2600년의 불교 역사를 넘어 무량 아승기겁의 진실한 불교 역사에 드러난 수많은 스승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불보살님들은 지금도 당시들의 세계에서 착한 불교 수행자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력은 타력에 의해 이끌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실존과 가르침을 믿고 자신의 온 마음을 모아 '팔정도 칭명염불'을 실천한다면 결국 그 수행자는 못 이룰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 ◆ 보살, 붓다를 이루는 유일무이한 수행법
기존의 지관 수행은 아라한이 한계입니다. 자력으로는 업장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공을 철견해도 업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팔정도 칭명염불'을 통해 지혜와 복덕을 쌓아 나간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멸되고 악연이 단절되어 반드시 보살이 되고 붓다를 이룰 수 있습니다.

효(孝)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증유한 천도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회상인 현지사의 천도대제는, 부부 각각의 친·외가족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유훈 무주교혼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주소 파악, 집진 장소로 데려옵니다.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 더 맑은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또한 조상 영가님들을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천도해 드립니다. 네 번이면 무주교혼과 지옥의 영가들을 하는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삼매 속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21세기 불교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육도윤회의 실상과 인간 영혼의 실체를 밝혀 무아론을 재정립하고 부처님의 실존을 제창하다.

중생구제를 위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법 팔정도 칭명염불을 소개한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